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심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겸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륙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짓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운을  
 또한 갖지 못하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되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체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불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증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의**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야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시키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증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차료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진  
 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불들라.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사 부모 모셨어라. **심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며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작자 미상, 「박태보전」-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깬다.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29.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증전이 거쳐야 하는 곳이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의’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승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국운을 갖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승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지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울버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飢)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배들 북도 쓸데없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새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노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려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회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돌을벌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붉은 풀이 뉘 밟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비의 쾌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쾌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술과 시루가 녹은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28	②	2	32	④	2
29	①	2	33	⑤	2
30	③	2	34	③	3
31	⑤	3			